

【독자 투고】

새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비판 기사를 읽고

윤주환

미국 뉴저지 거주 교포

강만수 전 재정원 차관이 월간조선 2000년 9월호에 쓴 새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글을 읽고 이 글을 쓴다. 강 씨는 한국에서 서양인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자존심이 없는 관료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강 씨는 그의 글을 끝내면서 우리가 편리하게, 어디까지나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언어 정서에 맞게, 철저하게 한국인 중심의 주체성을 목표로 새 로마자 표기법이 제정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새 로마자 표기법은 매우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국제적인 보편성에 따라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외국인이 편리하게 따라올 수 있게 영어권의 표준 발음과 언어 정서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그의 주체성 없는 의견에 역겨움을 느꼈다. 강 씨는 지금은 Prosumer시대라고 하며 그 소비자를 숫자가 많은 외국인으로만 잡았는데 새 로마자 표기법은 외국인을 위한 것이지만 우선 한국인이 먼저 이해하고 완전 소화하여 자신 있게 외국인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니까 그 실질적인 일차 소비자는 한국인으로 봐야 한다.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면 한국 사람이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한국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고 외국인들만 이해하기 쉬운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우리는 강대국 한가운데 놓여 있어 강대국의 영향이 클수록 우리 한국인의 주체성을 튼튼히 잘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고 강대국의 눈치만 살피고 따라만 가다가는 어느 한 순간에 민족 정체성을 잃은 망국민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어를 현지인 발음 중심으로 한다고 上海를 상하이로, 登小平을 덩샤오핑, San Jose를 새너제이로 주체성 없이 표기하여 한국 언론 매체의 소비자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오고 있는 형편이다. 사대주의를 표방하고 건국한 조선왕조에서도 중국 지명이나 인명을 우리 식으로 주체성 있게 발음해 왔고 또 중국 문화를 받아들일 때도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게 수용해 왔었다.

한글로 외국어를 아무리 정확하게 표기한다 해도 악센트가 틀리게 발음하면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 한다. 그와 반대로 한국어를 아무리 로마자로 정확하게 표기해도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어 보통 외국을 다녀 본 상식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한국인한테 물어서 교정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어차피 한국인에게 정확한 발음 확인을 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편리하고 또 주체성 있게 로마자 표기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서양인들이 처음에 어떻게 발음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정확한 발음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된다. 외국인들이 Gyeonggi를 가이옹기, 경기나 공기 등으로 각각 다르게 발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기가 맞다고 가르쳐 주면 된다. 강 씨는 eo, eu 발음의 곤란함을 역설했는데 이것들도 보통 상식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인명이나 지명을 읽을 때 eo, eu는 어떻게 발음하느냐고 한국인에게 한 번쯤 물어보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한 번 가르쳐 주면 그 후부터는 아무런 발음상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88 올림픽때 사마란치 위원장이 Seoul을 세울로 발음한 것은 그의 오만한 무식의 소치이며 그가 개막 연설 전 단 한 번이라도 Seoul의 정확한 발음을 한국 친구한테 물어봤더라면 그렇게 틀린 발음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강 씨의 주장처럼 Seoul의 표기를 반달표를 사용하여 Söul로 표기해도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이라 하지 않고 쏘울이라 부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외국인의 한국어 발음은 어

차피 한 번은 교정을 받는 게 당연하다.

미국 사람의 성명이나 지명 중에는 어떻게 발음해야 좋을지 망설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 예컨대 Myrtle, Reagan, Tucson, Navajo, Kearny 등 이루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미국에서 그런 단어를 처음 보았을 때는 그 단어를 혼자 발음해 보려고 이리저리 궁리해볼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한 발음을 알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배우는 것이 옳다. Reagan 대통령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할지 몰라 곤란해 할 때 레이건으로 발음해 달라고 요청해서 모두 레이건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런 생활의 지혜를 터득해 갖고 있는 서양 사람들은 낯선 한국의 인명이나 지명을 보았을 때 서슴지 않고 한국인한테 그 정확한 발음을 물어서 배운다. 한국 인명이나 지명을 만날 표시나 어긋점을 곁들여 표시해도 또 매켄라이샤워 표기법을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정확하게 발음하기는 어려워 한국인의 도움을 일단 받아 정확한 발음을 익혀야 한다. 그런 형편이라면 외국인 위주의 복잡한 매켄라이샤워 표기법을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에게 편리한 로마자 표기법을 쓰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

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모두 자기식으로 주체성 있게 외국어를 발음한다. Bach (독일 음악가)를 바크, Bernstein을 번스틴, Hamburg을 햄버그, Berlin을 벌린, Paris를 패리스라 하는 등 수 없이 많다. 그리고 같은 지명도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Houston이다. 텍사스에 있는 도시는 휴스턴이고 뉴욕에 있는 거리는 하우스톤이다. 이와 같이 미국 사람들도 자기 주체성을 살려 자기식으로 자기들에게 편리한 발음을 하는데 우리가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미국을 따라가면 결과는 뒤죽박죽으로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 씨가 경제 관료 출신답게 새 로마자 표기법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손꼽은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것이다. 그런 시행착오가 없는 것이 최상이지만 이번을 교훈 삼아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비뚤어진 관행이나 정책을 개선하는 데 그 비용이 아까워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자손만대를 위하여 잘못된 것은 일단 바로 잡아놓아야 한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어 가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주체성 있게 대처해야지 남들이 한다고 따라만 가다간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영어도 미국영어, 영국영어, 호주영어 및 인도영어가 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상호 불통하는 몇 개의 다른 영어가 존재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강 씨는 새 로마자 표기법 주장에 대해 영터리 주체성으로 지구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오랜 관행과 외국인을 무시한 관료적 무지와 독선이라 했는데 강 씨야말로 영터리 주체성을 갖고 외국인 눈치나 살피는 전직 관료로서 그럴 리야 없지만 먼 훗날 영어가 한국의 공용어라도 되면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영어를 우리의 국어로 바꾸자고 주장할 사람이다. 어떤 서울대 교수가 새 표기법을 '아주 잘된 애국자의 작품(a well done piece of work by a patriot)'이라고까지 했다는데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